



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 헤이트 인 아워 스테이트(NO HATE IN OUR STATE)' 콘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혐오 범죄에 취약한 단체 보호를 위한 보안 자금 추가 2,500만 달러 지원 제안

주지사는 예배 장소를 포함하도록 보안 기금 지원 신청 자격 확대 제안

자비츠 컨벤션 센터(Javits Convention Center)에서 공공 안전 및 보안 전문가들이 모여 혐오 범죄에 맞서고 자금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종교 지도자 지원

혐오 범죄의 위협에 처한 종교 기반 및 문화 시설을 보호에 현재 사용 가능한 4,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해방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참석 이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혐오 범죄에 취약한 단체에 2,500만 달러의 보안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예배 장소를 포함하도록 이러한 보안 보조금 신청 자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맨해튼에 위치한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노 헤이트 인 아워 스테이트(No Hate In Our State)" 보안 자금 콘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콘퍼런스에는 600명이 넘는 지역사회 지도자와 성직자, 공공 안전 부분 주정부 공무원, 보안 전문가가 참가하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발표는 혐오 범죄에 취약한 단체가 시설 보호를 위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4,500만 달러의 보조금 기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금 지원은 대표적인 [지역사회 혐오 범죄 보호 기금 프로그램\(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Grant Program\)](#)의 3차 라운드 별도 신청(Request for Applications)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주와 미국에서 불관용이라는 악행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커져가는 혐오의 불길에 맞서 우리는 반드시 연대하여

하나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은 곧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입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노력을 통해 종교 및 문화 기관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최초로 열린 "노 헤이트 인 아워 스테이트" 콘퍼런스에서 주정부 공공 안전 및 보안 전문가들은 문화, 종교 및 비영리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법과 활용 가능한 자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이 교육에는 위험 평가, 긴급 사고에 대한 대응, 행동 계획 수립, 시설 입장 제한 및 실외 조명 확대 등 인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단체 모범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가 창설한 [지역사회 혐오 범죄 보호 기금 프로그램](#)은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이 운영하며, 보안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비영리 보육원, 커뮤니티 센터, 문화 박물관 등 사상이나 믿음, 사명 등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개시 이후,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주 정부 자금 2,500만 달러를 지원되었습니다.

혐오 범죄 통계에 따르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지역사회에 대한 혐오 범죄가 전국적으로, 또한 뉴욕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뉴욕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의 절반 가량이 유대인 지역사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몬지에서 어떤 사람이 하누카에 랍비의 집에 침입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마체테로 공격하여 다섯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피츠버그의 생명의 나무 회당(Tree of Life Synagogue)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이 발생했으며, 최근 뉴저지 저지 시티의 코셔 시장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예시마 학교 및 가톨릭 학교가 총격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반유대주의와 폭력적인 극단주의로부터 유대인 기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청(RFA)은 지역사회 혐오 범죄 보호 기금 프로그램의 2,500만 달러 보조금으로, 학교, 비영리 보육원, 커뮤니티 센터, 문화 박물관, 주거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금을 통해 물리적 보안 개선 및 보안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조직은 자격을 갖춘 각 시설에 대한 신청을 최대 5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단체 당 최대 250,000 달러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보조금은 각 자격을 갖춘 시설에서 추가로 보안 교육, 카메라, 출입문 보강, 조명 설비 개선, 최신 기술 도입, 및 기타 관련 경비 체제 향상을 위한 예산을 최대 50,000 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신청은 학교와 데이 캠프를 위한 지역사회 혐오 범죄 보호 기금 프로그램(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Program for Schools and

Day Camps)의 2,000만 달러 보조금으로, 비영리 학교와 비영리 데이 캠프에서 추진되는 같은 종류의 프로젝트 및 노력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혐오 범죄 보호 기금 프로그램 및 학교와 데이 캠프를 위한 지역사회 혐오 범죄 보호 기금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으로서 다양성과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의 근간이며, 우리는 증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덕분에 혐오스러운 행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은 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은 뉴욕주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핵심 지도자를 한 곳에 모으는 등 뉴욕에서 차별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노력을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Michael Kopy 뉴욕주 비상 관리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때 교육, 의사 소통 및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범죄 보안 보조금은 비영리 단체가 시설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원을 강화하는 한편, 뉴욕이 언제나 혐오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Keith M. Corlett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주 경찰(State Police)은 더 나은 방식으로 혐오 범죄를 예방하고 조사하기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안전 보장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장 취약하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혐오 범죄 보호 기금 프로그램 및 학교와 데이 캠프를 위한 지역사회 혐오 범죄 보호 기금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증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추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FY 2018 State Budget)에서는 뉴욕에서 최근 빈발하는, 편견에 의한 위협, 희롱, 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 주 전역을 관할하는 뉴욕주 경찰 증오범죄대책팀(New York 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을 설립했습니다.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서, 혐오를 동기 삼아 유발된 범죄 및 편견과 관련된 추세, 지역사회 취약성, 차별 관행 등을 파악하고 수사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카운티 지도자, 교육구, 기타 핵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Cuomo 주지사는 미국 최초로 국내테러법과 규제를 도입하여 모든 학생이 2020 회계연도(FY 2020) 예산의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에 뉴욕의 홀로코스트 박물관(Holocaust Museum)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뉴욕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 핫라인 및 문자 회선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전화번호는 1-877-NO-HATE-NY이며 핫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